

제 1 교시

국어 멘토링

개관

성명

수험 번호

- 다른 국어 시험과 구별되는 수능 국어 시험의 특징을 안다.
- 다른 수능 교과 시험과 구별되는 수능 국어 시험의 특징을 파악한다.
- 수능 국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예측해본다.
- 앞으로 진행될 멘토링의 방향을 예측해본다.

0. 개관에 앞서

사람들은 크게는 인생부터, 작게는 짧은 외출까지, 많은 것들을 여행에 비유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상기해보면, 문득 수험 공부 역시 여행으로 비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목적지 없는 여행은 방황과 같습니다. 하지만 목적지 있는 여행일 지라도, 지도 없이 하는 여행은, 방황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방황을 수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여행을 떠날 때, 지도를 챙기고 밖을 나서야 합니다.

글을 길게 적고 싶었으나, 글 솜씨가 미천하므로 짧게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멘토링은 여행을 위한 지도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개관은, 여행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담은 여행서가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수험 공부에 영광이 있길 바랍니다.

시발점 올림

1. 다른 국어 시험과 수능 국어 시험의 차이점

배움의 소화.

비단 국어 영역에만 한정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므로 언급하겠습니다. 수능은 정보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에서 벗어난 시험입니다. 이는 수능 출제 매뉴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능 출제 매뉴얼의 3쪽에서 평가원은 “(수능을 통하여) 개별 교과 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 출제 매뉴얼 내의 출제 일반 지침에서 수능은 “단순 암기에 의해 답할 수 있는 평가를 지양하고, 주어진 문제 상황을 통해 문제를 추리하며 분석하고 탐구하여 해결하는 고등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원 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출제 매뉴얼에 적었다는 것은 ‘학력고사와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즉,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 과거 학력평가 시절 측정했던 ‘이미 받아들인’ 지식의 측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의 측면에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 두 문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8 수능 인용 및 변형)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1. (나)를 이해하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
- ②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겠어.
- ③ '고요함'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욕된 교외'는 서강에서의 생활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 ⑤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하는 말이겠군.

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하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수영은 1955년 6월 성북동에서 서강으로 이사하였다. 서강에서의 생활은 피폐해진 그의 몸과 마음을 점차 회복시키고, 그로 하여금 오랜만에 안정을 누리게 했다. 그가 이전과는 달리 생활에 대한 긍정을 시에 담아내었던 것도 그러한 안정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생활에 대한 시인의 긍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줄곧 이상과 현실을 문체 삼으면서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느껴 왔던 시인은 다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 내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서강에서의 생활은 1959년에 발표된 「사령(死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 ① '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
- ②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겠어.
- ③ '고요함'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욕된 교외'는 서강에서의 생활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 ⑤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하는 말이겠군.

너무나도 극단적인 비교입니다만, 이를 통해 학력고사 및 내신형 문제(1번 문항)와 수능 국어 시험 문제(2번 문항)의 차이점에 대해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번 문항과 같은 경우에는 선지 정오 판단의 근거를 문항 내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시험이 개념어에 대한 지식은 당연하고, 시 자체에 대한 지식 또한 요구함을 의미합니다.

2번 문항과 같은 경우는 선지 정오 판단의 근거를 <보기>로서 주고 있습니다. 즉, 성찰과 같은 개념어에 대한 지식은 필요할지 모르나, 시 자체에 대한 지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최소한의 지식을 지니고 있으면, 개인의 사고력을 통하여 문항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달리 말하면, 지식만으로는 수능 국어를 해결할 수 없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수능 국어의 특징은, 얼핏 보면, '국어 공부 무용론', '국어성적 될놈될' 같은 허무주의적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특징은 지식에서 능력의 측면으로 공부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도대체 능력의 측면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일까요?

경험의 最大화, 그리고 대응.

저는 능력 측면에서 공부한다는 것, 즉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공부에는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체적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사고 능력, 즉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실제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필요한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겪어 보는 것이 맞습니다. 수능 국어는 여타 과목에 비해 사고력의 측면이 성적을 결정하는 경향이 크고, 이러한 사고력을 상승시킬 방법은 경험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워도 해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체계화된 검토를 통한 정답의 유일성, 그리고 대응.

여러분들은 위 문구를 보고 당연히 어리둥절하실 것입니다. 정답이 객관식 문제에서 정답이 유일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당연한 말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수능 국어 한

지문을 출제하는데 약 수 천만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돈에서 순수 출제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검토 비용 역시 꽤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수능은 매해 약 60만 명의 수험생이 보는 시험이자, 어떤 면에서는 전 국민의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출제진들은 출제 이후 정답이 유일할 수 있도록 무수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은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정답이 유일함을 믿고 풀어야 합니다. “어느 해는 이렇게 복수정답이 있었다더라.”, “이 문제는 전원정답이라더라.” 같은 것은 그해 수능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사 복수정답이라는 느낌이 들지라도, 정답은 하나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두 개의 선지가 있다면 하나의 선지의 근거를 견고히 세우거나 찾아내십시오. 혹은 다른 선지의 근거를 지문에 근거해 파괴하십시오.

문항이 복수정답이건 아니건 수능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복수정답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수능 시험장에서 따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수능이 끝난 후 따져야 할 경우죠.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계화된 검토를 통한 정답의 논리성, 그리고 대응.

앞서 말했다시피, 수능은 60만 명이 치는 시험이자, 전 국민의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답을 보았을 경우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검토를 거치는 것이고요.

이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을 도출하게 돕는 근거가 지문과 문항 조건 내에 존재해야 하며, 그 근거를 통해 누구나 동일한 답을 낼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을 ‘정답의 논리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러한 정답의 논리성은 평가원의 평가기준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능 출제 매뉴얼에 무엇이든 적혀 있는 것이 있겠지만, 그것은 단지 추상적인 ‘법조문’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출문제라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례들을 보며, 우리가 평가원과 합치하는 점은 키우고, 그렇지 않은 점들은 줄여나가야 합니다. 계속하여 법정의 비유를 들자면, 우리는 유무죄를 판결 받고 형량을 선고 받아야 하는 피고입니다. 우리들은 앞선 판례를 참조하여 나가야 하고, 그를 바탕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수험생들은 기출문제라는 판례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평가원이 요구하는 사고력을 배양해야 할 것입니다.

2. 타 수능 교과 시험과 수능 국어 시험의 차이점

수능의 시작, 그리고 대응.

모의고사를 친 적이 있다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만, 수능 시험은, 8시 40분에 시작하는 국어 시험을 첫 교시로 하여 시작합니다. 수능은 하나로 이루어진 한판 싸움입니다. 국어 따로, 수학 따로, 영어 따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의 수험생은 앞 전 교시에 친 교과목의 영향을 받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해 국어를 망치면 그해 수능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장에서는 모의고사와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국어 시간예요. 위 문단과 이 사실을 종합해보면, 그해 수능을 잘 치기 위해서는, 긴장을 하지 않거나, 설사 긴장을 하더라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수능 시험장은 무엇이 다르기에 긴장을 하게 되고, 긴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다른 점은,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수능 시험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처본 모의고사와는 다르게 수능 시험은 작게는 대학, 크게는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긴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수능 시험장에서 숨을 고르고, 괜찮다고 자신을 달래세요. 지금까지 해온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긴장이 조금 덜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점은 평상시 시험을 보던 장소와는 다른 장소라는 점입니다.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끔은 다른 장소에서 시험을 치는 경험을 만들거나, 혹은 시험장에 미리 도착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점은 익숙한 지문이 아닌 다른 지문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다른 모의고사 역시 마찬가지이나, 수능 시험장에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러한 것이 수험생에게 아주 큰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먼저 좌석을 체크한 이후, 준비물들을 풀어놓고, 지금까지 안 풀어본 지문을 한 번 훑어보세요. 굳이 문제를 풀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어 시험지가 나오면, 인쇄 상태를 체크하면서 나온 지문들, 지문의 구조를 간단하게 눈으로 훑어보세요. 그러면 긴장이 덜해집니다.

사고력의 과목, 그리고 대응.

수능 교과 중에서, 국어 과목이 가장 다른 점은, 사고력이 요구되는 정도가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수학과 같은 경우, 지식적 요소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국어 과목은 순수하게 사고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투모의고사 등의 사설 문제는 수능 대비에 있어서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공부의 대상을 수능 기출 문제와 넓게는 평가원이 출제한 문제에 한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수능 치는 날 국어 시간에 머리가 가장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머리를 예열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9월 이후로는 6시에 기상한 이후, 아침 시간에 국어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칼럼 계획

앞으로 적을 칼럼들의 대강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흐름성의 원리를 통한 비문학 (비문학 개관)
 - 1.1. 하나의 흐름을 가진 비문학
 - 1.2. 둘 이상의 흐름을 가진 비문학
 - 1.3. 어려운 흐름과 많은 흐름을 가진 비문학
 - 1.4. 흐름의 패턴화를 바탕으로 한 탈패턴화
2. 문학을 푸는 방법에 대하여
 - 2.1. 개념어 공부의 필요성
 - 2.2. 시가 문학의 독법
 - 2.3. 산문 문학의 독법
 - 2.4. 고전시가에 대해서

“앞으로 적을 칼럼들의 대강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되었어야 할 것인데 새내레기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저걸 순서대로 다 적어서 될 일이 아닐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제 이상은 주 2회 칼럼을 적어서 한 칼럼은 저 순서에 맞춰서 적고, 다른 칼럼은 제 생각에 당장 필요할 것 같은 내용을 담은 칼럼을 적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한 칼럼이 필요하시다면 부담말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영하여 글 적도록 하겠습니다.